

서울적십자병원, 치매 조기진단·예방 지역사회 협력 강화

종로구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

기사입력시간 : 2025/05/07 [10:50:00]

유시온 기자

【후생신보】 서울적십자병원이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.



서울적십자병원(병원장 채동완)은 4월 30일 종로구치매안심센터와 치매 관련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고, 지역사회 내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,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자 마련됐다.

협약에 따라 서울적십자병원과 종로구치매안심센터는 ▲치매 대상자의 의뢰, 확진 진료 및 검사비 지원 ▲치매안심주치의 사업 협력 ▲치매 관련 사업 공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은 "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됐다"며 "서울적십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

으로서 종로구치매안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, 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서울적십자병원은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 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선정돼 △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△중증응급 이송·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 △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△일차의료·돌봄 협력사업 △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사업을 수행하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.